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주일은 거룩하게
생활은 검소하게
질서는 내가 먼저

결의다지고 홍해작전 종료

새벽엔 성찬식, 저녁엔 승전감사예배 홍콩선교사 파송예배와 세계선교연구원 개원식도

지난 6일부터 11일간 진행되었던 제4차 홍해작전이 오늘 저녁 승전감사예배로 모두 끝났다.

“은혜와 질서”가 주제였던 이번 홍해작전은 매일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영적 각성의 재충전은 물론 새로운 질서 의식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 맛보게 한 전국잔치였다.

야고보서 강해를 통하여 성도의 믿음 생활의 실천과 신행일치의 가치관을 확립했으며, 고요한 새벽제단에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도고가 응답 받는 놀라운 역사도 체험했다. 새벽기도회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으며, 우리들의 모든 생활은 검소하게 하고, 어떤 형태의 질서도 내가 먼저 지키는 열심도 보였다. 이를 위

해 신앙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기로 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창조질서를 보전하고, 전국 시민생활 질서의 실현을 위하여 힘쓰기로 했다.

이번 홍해작전에는 안양, 수원, 평택으로부터 의정부, 동두천, 그리고 안산, 성남, 광주, 봉천, 인천, 파주에서 새벽 2시에 출발하여 5시 새벽기도회에 참석하는 열성적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차량을 안내하는 차량관리 요원들의 헌신적인 봉사, 그리고 직장출근을 돕기 위해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에스더전도회 회원들의 수고, 매일 아침 찬양으로 새벽기도회를 돕는 찬양대원들,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부, 경비담당 형제들, TV모니터나 음향 조정을 관리하는 음향실 관계 직원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숨



은 봉사가 작전 성공의 지름길이 되었다.

14일에는 해가 떠 있는 동안 온 성도들이 금식하여 금식미와 헌금으로 방글라데시난민을 돕기로 했다. 오늘 새벽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교훈에 동참했으며, 떡을 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피차 확인케 했다.

저녁 찬양예배 시에는 11일간의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를 드

림과 동시에, 홍콩충현교회에 김은태 목사를 파송하는 일과, 세계선교연구원을 개원하는 순서도 가질 예정이다.

시상자 발표

글짓기 시상자

대 상 : 강석천, 김은정

대 상 : 유연주, 유영광, 정혜리,

대 상 : 이재우, 김미경, 은수현

대 상 : 신지은, 김영세, 김수경,

대 상 : 오진영, 박영, 송에스터

대 상 : 김진아, 김성은, 나지영,

대 상 : 나수진, 조혜인, 이정선

대 상 : 오인선, 김보미, 김지은,

대 상 : 이태희, 윤주형, 이하나

대 상 : 포스터 시상자

대 상 : 이종훈 대 상 : 이 화

대 상 : 한유리 대 상 : 박서향

대 상 : 전은지 대 상 : 김도희

대 상 : 박원영 대 상 : 김 건

대 상 : 양현준 특별상 : 김성대

그림그리기 시상자

대 상 : 안형민, 최은진

대 상 : 박예나, 임수빈, 이선화,

대 상 : 정요셉, 권신익, 정진성

대 상 : 손성곤, 김창현, 변준영,

대 상 : 한성은, 최성호, 전수린,

대 상 : 전수지, 안상미

대 상 : 우경일, 조혜은, 김병조,

대 상 : 김지나, 김정은, 남미란,

대 상 : 정희정, 최연승

대 상 : 이미영, 김선아, 이성수,

대 상 : 이보배, 임정규, 조은주,

대 상 : 김보미, 윤미정, 한혜선,

대 상 : 박경원, 주민경, 이승민,

대 상 : 김혜영, 김선경, 오민경,

대 상 : 이정철

전미령 선교사 간병차 귀국

전미령 보츠와나 선교사가 선교사역을 수행하던 중 풍토병에 걸려 고생하다가 지난 4일 귀국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생명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헌신하는 전 선교사가 하루속히 회복되고, 충현의 모든 교역자들이 건강한 육신으로 귀환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요청된다.

세계선교연구원 23일 첫 강의

우리 교회 부설 세계선교연구원(원장 이종윤 위임목사)이 오늘 저녁 7시 개원식을 가짐으로써, 선교에 대한 소명받은 성도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세계선교연구원의 첫 강의는 23일 오후 4시 배다니홀에서 있다. 선교연구원은 52주 과정으로 선교신학, 선교역사, 선교와 교회성

장, 선교와 비교종교, 21세기를 향한 선교전략, 제3세계 선교운동의 발전, 아프리카선교, 아시아선교, 중남미선교, 동구권선교, 경건훈련 등 선교 사역에 필요한 과목들을 다루게 되며, 강사로는 이동주 박사, 임홍빈 박사, 박형용 박사, 전호진 박사, 노봉린 박사, 전재욱 박사, 강승삼 박사, 김학진 목사가 수고하게 된다.

읽을 만한 책

《한국의 신학 교육과 교회》

제3차 충현복음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강연들의 모음집이 《한국의 신학 교육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이 책은 한국 신학 교육의 현주소와 제도의 문제점, 이것이 한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깊이 다루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어, 한국 신학 교



육의 방향 정립과 교회 갱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김영삼 장로의 기도문집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는 가장 어려

웠던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주일 예배 시간에 드렸던 대표 기도들을 모은 것이다. 이 책에서 정치 활동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깊이 체험했다는 김 장로의 순수하고 진솔한 영적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다.

《홀로 한 사람은...》

뇌성마비 장애인 백원옥 학생(에바다부)이 서정시집 《홀로 한 사람은 고독을 위해 별의 세계를 간절히 보듬었다》를 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겪은 각고의 쓰라림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영혼의 해맑은 노래들을 읽어내려가



면서 인간 승리의 위대함을 엿볼 수 있다.

청년3부 성경암송대회

청년3부(부장 최대원 장로, 지도 김창수 목사)는 오늘 반별성경암송대회를 개최한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한 이 성경암송대회는 말씀을 통한 교제의 자리가 될 것이다.



홍해작전 및 김치(KIMCHI)세미나를 위한 새벽기도회
설교 요지

야고보서 강해 (3)

이 중 윤 위임목사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이 아니라, 선의 근원이십니다(약1:13, 17).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바르게 알고 속거나 오해하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약1:16).

첫째, 인간들이 서로 주고 받는 선물은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얻기 위해 주고 받기 위해 흘려서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선물을 줍니다. 즉 받는 자의 빈곤을 채우기보다 자신의 것을 더 채우기 위해서 선물을 합니다. 따라서 이는 일시적인 만족을 가져오며, 적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하는 선물은 한정적인 의미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선물은 온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부족한 것이 없고, 진실되고, 이해할 만하고, 적당하며,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제7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 (약1:17)

모든 길은 공평하고 진실무망하며 공의로 우시고 정직하십니다(신32:4).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온전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와의 말씀은 정미(精美)합니다(시18:30).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기만 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롬12:2).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

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합니다(시19:7, 8).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온전하고 좋은 선물이 옵니다.

셋째, 하늘로부터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려온다”는 것은 계속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선물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옵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

고 하였습니다. 즉 빛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창1:3). 따라서 하나님은 자연의 빛의 근원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식의 빛의 근원이십니다. 지식은 우리들에게 빛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신학적 빛의 근원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믿음으로 진리의 빛을 얻고, 삶의 방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빛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벧전2:9).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므로 우리들은 그분을 믿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분이십니다(약1:5). 천지창조시에 피조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새 생명(신생:新生)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나케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1:3)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가 산 소망을 갖게 되니 그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엡2:4, 5).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8일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약1:18)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롬5:11, 9:15, 11:6).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들을 위하여 새 생명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 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

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렘1:5)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엡1:4)

이러한 새 생명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주어진 것이므로 그 축복도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예수님께 내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요6:37)

둘째,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낳으셨습니다(약1:18). 진리의 말씀이란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골1:5; 엡1:13). 로마서 10장 17절

에 의하면,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조물(造物) 중 한 첫 열매”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약1:18).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열납되도록 흔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구별시키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을 존귀하게 하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할 의무가 있으며, 선택받은 자들로서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우리들을 자녀로 부르시고 그 주권 속에 우리들을 인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고후5:17).

첫째,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경고하셨습니다(막4:23).

야고보는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속히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만드는 진리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 설교 불감증에 걸린 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말씀을 듣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부르실 때에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라며 순

제9일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의 스타일 (약1:19, 20)

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둘째,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잠언에는 이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잠10:19)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잠21:23).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약1:26).

먼저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더디하여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말을 하게 되면 흔히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벧2:3).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를 타인 앞에 자랑해서는 아니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에 대해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은 공격적이고 비난적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약3:10)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금해야 하겠습니다. “말장이가 없으면 다름이 쉬느니라”(잠26:20)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하셨습니다(엡4:27).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약1:20).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은 자제력을 상실하여 타인을 싫어하게 되는 것으로, 그 결과 죄를 범하게 됩니다. 화가 날 때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노를 품었다가도 곧 풀리게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교만한 마음이 가라앉고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자연히 감사와 기쁨이 옵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쫓아 비난, 폭력, 자제할 수 없는 열기의 삶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정욕의 종으로 비림받아 마땅한 자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만 입이 있어도 다 감사, 다 찬양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 그분을 영접한 이후, 구속하신 사랑에 빚진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거리나 공원이나 캠퍼스에서, 그리고 병원이나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찬양을 통해 전도했던 일은 제게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즐겁고 자랑스러웠던 대학, 청년 시절의 저는 선교의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교란 말을 들으면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가슴이 뛰었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면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사명이 너무 막중하고, 그 길이 어렵게 느껴져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할 때 선교에 대한 사랑은 짝사랑과 같았고, 나는 선교사로서 부적합한 자이기에 오직 목회자의 길에 정진하리라 생각하였습

■ 홍콩선교사의 사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김 은 태 목사(홍콩선교사)

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중현교회로 인도해주셨고 특별히 아시아선교대회, 김치(KIMCHI)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선교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되고 새로운 비전과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으로 이방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방선교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의 불신앙과 일신의 안일함을 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주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즐거움이요, 소망이며, 모든 것이 되십니다. 신령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어떠한 길이라도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영광만을 구할 뿐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며 어두운 이방 땅의 빛이 되고자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일꾼된 중현의 가족 여러분께 우리의 선교지 홍콩과 12억의 중국인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콩에는 영국인 그리고 우리 교포를 비롯한 외국인이 약간 있지만 98퍼센트가 중국인입니다. 대부분이 중국 전통 종교의 우상 숭배에 젖어 있으며, 특히 세계 자유무역항으로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참된 구원의 길도 외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1997년 7월에는 홍콩의 주권이 중국으로 반환됨에 따라 홍콩 선교는 중국대륙 선교전략

상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역사하셔서 홍콩 '복음화'와 중국대륙 선교의 문이 더 넓게 열려지도록 아래와 같이 기도해주시시오.

1. 홍콩중현교회의 부흥을 위하여(현재 장년 30명이 92년까지 100명이 되도록)
2. 홍콩중현교회가 중국대륙 선교의 센타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3. 교우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며, 복음 전파의 헌신자가 많아지도록
4. 홍콩중현교회에 새벽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 홍콩사회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5. 고온다습한 현지 기후에 선교사 가족이 건강하게 적응하며, 속히 언어에 능통해지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되도록
6. 중국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헌신자가 많아지고, 그들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도록

사진으로 본 제4차 홍해작전



▶ 제4차 홍해작전

▼ 차량봉사자들의 수고는 이른 시각에도 끝이지 않았다.



▼ 대학부 학생들의 찬양은 은혜를 더했다.



▲ 뜨거운 기도의 열기는 연일 본당을 가득 메웠다.



▲ 뜨겁게 기도하는 이종운 위임목사.



▲ 김치(KIMCHI) 세미나 참가자도 함께 한 홍해작전.



▲ 참모회의

▼ 고사리손을 모아 드리는 기도.



▶ 홍해를 건너기 위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성령으로 감동받은 성도들.



▶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한 사랑의 차 함께 타기

▼ 그림그리기 등은 학생들의 신앙고백의 장이기도 했다.



내가 건넌 홍해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이 있는 곳에 능력과 헌신과 기쁨이 있다. 충현교회가 홍해작전을 시작한 지가 어언 4차에 접어들었다. 1차부터 참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응답을 체험하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홍해작전에 거는 기대는 신비와 희망 바로 그것이었다. 1-3차 기간 중에는 봉고를 동원하고 자가용을 움직이면서 다락방 식구들을 동원하고 권면하였으나, 이번에는 사정상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기도하는 중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김치 세미나 기간중에 결혼기념일이 끼어 있어서 그날 양말 한 켤레 선물 안해줘도 좋으니 다락방 식구들을 위하여 차를 제공해달라고 남편을 졸랐다. 남편은 기꺼이 응락하고 콧비를 대절하기 위한 액수를 계산해 보았다. 40여만원의 비용을 꽤히 아내의 결혼기념일 선물인 봉고대여비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감사한 중 우리가

정에서 부담하기로 한 교통비를 지역장님과 다락방원들이 함께 부담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감사했다.

3차 홍해작전 후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사로 있던 회사를 확장하여 독립하게 되었고 장막터도 넓혀주셨다. 홍해작전이 횡수를 거듭함에 따라 나타나는 열매는 처음에는 자기 문제만을 추구하고 기도하던 것이 응답을 통하여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해결해주시는 체험과 아울러 이제는 눈을 밖으로 돌리게 된 점이다. 내 개인, 내 가정의 문제보다도 교구식구들의 문제가 더욱 간절했고 교

기도에 불 붙인 기회

전 은 실 집사(제7교구)

회와 민족의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래서 이번 홍해작전에는 특히 다락방이 사랑으로 뚝뚝 뚫어서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기도 불붙는 다락방이 될 것을 기도드렸다. 다락방 식구들의 마음가짐에 응답이 나타났다. “홍해작전에도 시작되는구나. 힘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기도의 기회를 허락하셨구나. 놓쳐서는 안된다.”는 일사각오의 신앙들이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개개인이 체험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일년 중 한 차례는 기도의 불을 당길 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다락방 식구들의 임원은 홍해작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작전이라는 것이다. 제4차 홍해작전은 모든 교구식구들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게 되어 기도 불 붙이는 기회, 사랑으로 뚫치는 기회가 되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타교회의 권사님이신 시어머님께서 홍해작전 기간 동안 본 교회에 나가셔서 기도의 후원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홍해작전은 충현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충현의 가족들과 연관된 많은 분들이 자기 교회의 새벽제단에서 이 홍해작전을 기도로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되었다.

금년 홍해작전에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였던 남편의 자원하는 봉사가 이루어졌고 책임있는 남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 점이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육적인 문제뿐 아니라, 영적이고 내면적인 것까지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유교집안 분위기에서 자란 나는 가톨릭 학교를 다녔으나 교회 생활과는 먼 위치에 있었고 믿는 아내(최영애 집사, 길동3다락방장)를 만나 결혼한 후 아내의 5년간의 끈질긴 기도의 산물로 교회의 한 구성원은 되었으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주일에만 시계추처럼 교회와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무기력과 생활의 나태와 침체를 자각하면서 금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강한 도전 받고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되었다.

100일 기도일을 작성하자 아내의 마음 속에는 “40일만 할 것이지 석달 열흘 씩이나”하는 마음이 일순 들었으나 “사탄 노릇하지 말아야지” 하는 성령의 순간적 깨우침으로 쾌히 응낙하고 함께 4월 23일부터

터 작정기도에 들어갔다.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 특히 홍해작전을 준비하는 기도로 그 소임을 부여받았다. 아내의 기도제목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가장으로서 온 가정을 이끌어주는 것이고 보면 이번 홍해작전은 내 가정이 가장 중심으로 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점이기도 했다. 감사한 것은 4월부터 쌓은 기도를 뒷받침하여 김치세미나, 홍해작전으로 연결된 기도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가장으로서의 신뢰 회복

이 철 화 집사(제11교구)

다는 점이다. 이 세상의 것들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서 어찌하든 앞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는 믿음의 확립이었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과 생활의 변화를 위하여 드린 기도의 응답이 분명하다.

더욱 감사한 것은 3차 홍해작전시부터 직장을 바꿔보고픈 생각이 있었던 중이변 홍해작전 기간 중에 생각지도 않은 곳으로부터 요청이 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거나 내 능력의 충만함으로 요청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

실시되면서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홍해작전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으로서 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쌓고 모든 면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짐으로 육적인 문제의 응답보다 내적인 변화의 응답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진다.

아내는 4월부터 전 다락방원들이 홍해작전에 참가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부르짖었다. 연로하신 할머니 한 분을 제외하고 7가정이 전 가족 아니면 부부가 새벽을 가르며 충현교회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갔다. 내 가정뿐 아니라 길동3다락방이 다시 한 번 기도를 깨우는 귀한 기회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시부모님(김중수 집사, 안경현 권사, 충현교회 초창기 멤버)의 믿음의 유산이 있는 가정이나, 남편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고 목을 곧게 함으로 사업의 부진, 가산의 몰락의 쓰라림을 겪게 되었다. 남편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상이나 미신에 대한 적대 감정은 있었으나 교회 출입은 사절하였다.

이번 홍해작전이야말로 남편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해야 될 절호의 기회임

을 알고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던 중 홍해작전에 함께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성령의 역사로 남편은 쾌히 응낙했고 나보다 더 서둘러 새벽잠을 깨웠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는 도중에 “오늘 설교는

나를 들으라고 하는 설교였다”고 간증까지 하였다. 홍해작전에 시작되면서부터 남편의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한 것이 눈에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에는 짜증을 부리는 때도 있었지만 이번 기

간 동안 줄곧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남편의 마음속에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빛과 믿음의 생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은 이번 홍해작전의 큰 소득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확신한다. 남편은 홍해작전이 끝난 후로도 계속 교회에 출석하기로 다짐하며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목이 곧은 자도 깨우쳐주시고 감동감화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목이 곧은 자가 돌아오는 축복

고 금 자 권사(제8교구)

나를 들으라고 하는 설교였다”고 간증까지 하였다. 홍해작전에 시작되면서부터 남편의 마음에 동요가 일기 시작한 것이 눈에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전에는 짜증을 부리는 때도 있었지만 이번 기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 언제일까? 내가 어릴 적 일이다. 내가 너막막에 걸려 잘 걷지 못하였었다. 그런데 어느 전도사님의 기도로 나았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때로 그 일이 있는 후로는 계속 잘 못하게 되었다. 하지만 공부를 잘해반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 누나는 때때로 이런 말을 한다. “그런 병 걸리고 나서 공부 잘하는 아이 별로 없다는데 넌 재수 좋은가야.” 그러나 나는 재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연이나 재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고무동력기를 만들어 시범비행할 때의

일이었다. 잘 날지 않아 근심하던 중 정작 대회에서는 잘 날아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나는 내 자신은 너무 초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셨다. 마치 보잘 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백

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강대국이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글을 쓴다면 말도 끝도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숭위에 사는 것조차 큰 은혜이기 때문이다. 언젠가 비디오에서 어느 한 신앙심이 깊은 여자가 기적을 행한 일을 본 적이 있었다. 그분의 전도 생활을 보고 이런 생각

을 하기도 했다. “참 놀랍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 저 정도가 됐다. 몇 장작 저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몇 배나 몇 십배의 능력을 가져고 계실 것인가?”

우리 집은 전체가 교회에 다닌다. 그래서 각기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조금이나마 참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겠다. 비록 보잘것없지만, 하늘 나라에서는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큰 상을 생각하면서.

글짓기 대상

하나님의 은혜받은 나

강 석 천 학생(초등5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며 나를 인도하셨다. 마치 보잘 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백

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강대국이 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글을 쓴다면 말도 끝도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